

**【제75차】 한국 사회 윤리 형성의 요소들**

백종현(서울대 철학과 교수)

현대 한국 사회의 윤리 상황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유교·기독교·공리주의(功利主義) 풍조·물리주의(物理主義) 사조 등 네 요소이다. 이 가운데 앞의 두 요소가 보편적 윤리를 세우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면, 뒤의 두 요소는 그것을 허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유교 윤리는 인간의 자연 본성의 선함을 당위화하고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근친애를 사회 윤리로 확대시킨 것이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보답을 강조하는 유교 윤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윤리 정립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기독교 윤리는 절대자에 의한 계명이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인간의 보편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절대적인 사회 윤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절대자에 의한 보상의 기대 때문에 선행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선(善)이 이(利)에 의거하는 것이 되고,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 약화될 때는 그 강제력 또한 약화될 수 있다.

공리주의는 오늘날 폭넓은 지지를 받는 사회 정의 이론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선악의 윤리 문제를 이해(利害)의 문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중국에는 윤리시설 자리를 없애버리는 반도덕론이 된다.

물리주의는 아예 선·악의 가치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윤리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이성의 옷을 입은 니체주의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확산되는 공리주의와 물리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 보편적 사회 윤리를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렇다고 전통적인 유교 윤리가 복원된다거나 기독교 윤리가 체질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으므로,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가능한 하나의 이상주의의 길이다.